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이우영(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서울: 월간조선사, 2002)
- 임홍군, 『북한은 죽어 살고 남한은 미쳐 산다: 법이 없어 매맞는 북한여자, 사는 게 바빠 졸졸이 된 남한남자』(서울: 통일도서, 2003)
- 황장엽, 『어동의 편이 된 헛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월간조선사, 2001)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서울: 세명, 2001)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1.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증하기 시작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9년 148명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002년에는 1,141명으로 1,000명대를 돌파했고, 2004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 전년도 입국자와 맞먹는 1,200여 명이 들어왔다. 사실 중국 등 제3국에서 방황하는 UN추산 10여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반인권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남한으로의 입국 러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한편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같은 냉전적 대결의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도 예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귀순용사’로 대접받고 체제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월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증언자로 반공교육의 일선을 누볐던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 시대를 거쳐 거주지역의 이동이 중시되는 ‘이탈주민’의 처지로 바뀌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와 시민 사회의 환영도 다분히 의례적이 되었다. 도리어 일부에서는 이들을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나 어쩔 수 없이 부양해야 하는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생겨났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쟁을 덕목으로 삼는 남한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힘든 나날을 지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는 여전히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직도 닫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며, 교류와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겪을 다양한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같으면서도 다른’ 사회적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건강성과 성숙함을 드러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몇 개의 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1)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갖는 첫번째 존재의의는 북한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일년에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사람이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등 북한이 개방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마른’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나, 북한학자들의 연구활동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북한관련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성격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보다 풍부한 북한관련 지식을 남한에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정치 중심에서 북한사를 포함한 일상생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경향도 있지만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다양한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새로운 관심은 관심 자체로 끝나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윤대일의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서울: 월간조선사, 2002, 이하 『악의 축……』)은 북한관련 증언의 전형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북한내부 그것도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권력의 개인 집중을 바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물리적 억압기구는 권력유지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의 근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북한연구자를 항상 ‘당서열’로 대변되는 권력의 핵심의 동향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권력의 작동과정에 대하여 궁금증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북한의 정치구조나 권력체제연구는 말 그대로 구조나 체제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제로 권력핵심부를 비롯한 주요한 국가적 권력기구의 정치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북한체제에서 특히 더욱 폐쇄적인 권력 중심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악의 축……』은 그 동안 중요한 정치과정의 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악의 축……』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주민통제 메커니즘, 김일성 사후 중대사건들, 북한 사회의 숨겨진 장면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등 5부로 나뉘어 있다. 각 부는 다루는 주제별로 일반론과 현장의 경험이나 사실들을 예시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를 다루는 일부의 경우 국가보위부의 발생과 특성을 다루면서도 필자가 경험한 접경지역 보위부의 활동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의 축……』은 냉전시대 아래 지속되었던 ‘폭로식’의 북한관련 증언서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편에 걸쳐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체제비판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남한의 ‘동매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충실하다. 이러한 특성은 이 책의 출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책을 읽은 후 북한체제에 대한 혐오감은 확대될 것이며, 김대중 정권 아래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가 들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일방적인 ‘반공교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도 국가안전보위부라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최근 북한내부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증언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책의 주제와는 다소 벗어났지만 북한 주민들의 최근 일상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다루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한 증언이라는 점도 이 책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은 죽어 살고 남한은 미쳐 산다: 법이 없어 매맞는 북한여자, 사는 게 바빠 족쌀이 된 남한남자」

임홍군의 「북한은 죽어 살고 남한은 미쳐 산다: 법이 없어 매맞는 북한여자, 사는 게 바빠 족쌀이 된 남한남자」(서울: 통일도서, 2003, 이하 「북한은……」)는 앞의 책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남북비교라는 것도 점도 그려하지만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치나 체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경계인’을 자처하고 있는 저자의 북한에서의 직업이 작가였다는 점도 이러한 주제 설정과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수년 동안 남한사회의 북한 일상에 대한 관심 증대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양아치와 조폭’, ‘전투배낭과 복권지갑’, ‘베란다에 사는 돼지와 TV 보는 애완견’ 등 소제목만 보더라도 읽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실제로 책의 내용도 매일 매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북한의 다양한 측면들을 알게 해주고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남한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의 덕목은 바로 이점에 있다. 지나치게 김일성·김정일 그리고 주체사상에만 매몰되었던 ‘남한적 시각’의 사각지대였던 북한의 일상을 알게 됨

으로써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증언집’ 풍자 줄기차게 고집했던 ‘북한=나쁨, 남한=좋음’의 등식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갖는 신선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이 갖는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탈 주민이 독자적(?) 시각으로 남북한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한 비슷한 종류의 증언들이 저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남한의 정부나 출판사 혹은 특정 집단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흘로서기가 강요되고 있고 결국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닌 ‘경계인’으로서 이들만의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들만의 ‘눈’과 ‘생각’이 『북한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1)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는 ‘귀순용사’는 그 자체로 체제의 우위를 증명해 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귀순용사와의 거자(북한의 표현)는 극진히 대우했고, 국가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

임겼다고 볼 수 있다. 상당한 금품을 귀순의 대가로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방공연사로 활용하고 직장을 알선하는 등 완벽하게 국가가 이들을 대우했다. 이것은 곧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과 사고가 국가와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이상 남북한간 체제 경쟁이 의미가 없어진 현실에서 최소한 남한에서 이들의 정치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뒤쳐진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탈출한 ‘의거자’의 정치적 효용가치가 있지만, 국가가 이들을 책임지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이나 구호 혹은 원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단 지원체제가 과거와 비교할 때 턱없이 작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고, 생활에 대한 통제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독자성 회복과 더불어 독립적 사고의 확립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와의 관계 재설정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 조선로동당 국체비서 출신의 황잡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황장엽의 망명은 그가 ‘주체사상의 창시자’ 혹은 ‘김정일의 스승’이라는 수사와 더불어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승리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 동안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최고 위치를 경험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의 망명의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적지 않았다. 또한 주체사상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의 저서(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와 그의 증언은 관련 북한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가 입국한 당시 북한연구자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정

치적 가치가 없어졌다면 그 정점에 있었던 황장엽의 경우는 더욱 극적인 반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와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뜻을 대변할 필요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황장엽은 반대로 정부와의 대립 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 반전은 알 수 있는 책이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월간조선사, 2001, 이하 『어둠은……』)이다. 출판사(월간조선)이나 발문의 성격을 썼던 조갑제가 대표적인 반정부 언론 언론이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황장엽이 처한 남한에서의 정치적 위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둠은……』 역시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써왔던 책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수령절대주의나 인권유린 실태 등과 관련된 부분이 그 것인데, 사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 햇볕정책의 위선과 환상이라는 2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북한에 관한 책이면서 사실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다. 과거 어떤 북한이탈주민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지위와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른 체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과거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자의 신봉자 황장엽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극우인사와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사상적 전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대중 정부라는 공동의 적을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이 사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평생을 사회주의의 이상향 실현을 위해 살아온 사람과

그 것의 저지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간의 결합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책의 앞뒤를 장식하고 있는 조갑제의 표현을 따르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 정확히 말한다면 지옥의 핵심에 혹은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의 대북정책 비판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포함한 남북한 화해협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의 자가만족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관심은 북한의 5년 내 붕괴를 철석같이 믿었던 대표적 북한이탈주민이 사고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황장엽은 붕괴론을 포기하면서 남한체제가 우선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글쓴이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가 북한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는 남한이 훨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라면 그의 존재 가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둘 다 아니라면(아마도 글쓴이는 이 입장인 것 같은데) 남한이 잘못된 대북정책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황장엽은 국내의 극우세력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는 ‘빨갱이’와 다름 아닌 것(어둠의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이와 같이 대상을 규명한다면 그 자체로 논의는 끝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책이라면 왜 정부 혹은 햇볕론 지지자들이 어둠의 편인가를 세밀하게 증명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은 나쁘기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남한 내 많은 극우 보수주의 논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단순히 어둠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식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 그러했

기 때문에 남한 내 햅별론 비판론자와 질적인 차이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다지 차별성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은 햅별정책에 대한 충실한 비판서라는 가치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와 독립된 자기 발언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국가에 종속되어 국가의 이념적 선전대의 역할을 했던 처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그것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그가 탈북자 연합회 대표라는 직책을 생각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인 사회세력화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소속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분리가 선행되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 황장엽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황장엽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 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세력화 혹은 정치세력화하여 지향할 목표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고 있는데, 이 책의 토대가 국내 극우 세력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와 대처점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그와 동거를 제안했던 것처럼(사실 이것은 대단히 희화적인 사건인데 김영삼 정부시설 북한이탈주민의 정부보조가 가장 형편없었다). 황장엽의 말을 ‘금파옥조’로 활용하는 것도 이들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분리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정치적으로 흘로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세력에 포섭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냉전시대 보수적 정권이 이를

을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이들을 위하여 활용했듯이 이용의 주체만 바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홀로서기는 실패할 것이고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한사회에서도 그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앞에 소개했던 책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쓴 책들이라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서울: 세명, 2001, 이하 『북한이탈……』),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전우택, 서울: 오름, 2000, 이하 『사람의……』)는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이 쓴 책이다.

윤여상이나 전우택 모두 그 동안 꾸준히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여온 탁월한 학자들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나 『사람의……』는 그 동안 글쓴이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하여 학문적이고 실무적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연구결과가 정리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 두 권의 책을 읽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공감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진다.

특히 단순히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구호의 대상이나 피상적인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실험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지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동안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서도 단발했던 추상적인 이론이나 이념적 논의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정책담당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책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다소 두 책이 갈라진다. 전우택은 정신의학자라는 본인의 전공에 부합하게 정신적인 차원의 적응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심리적응, 문화적응 청소년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치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윤여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적응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의 기본 관심은 현황, 적응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과제 등 정책적 차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가 정치학도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개의 책이 같고 다른 만큼 서로 상보적일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윤여상의 책이 시사점을 준다면 전우택의 책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남는 아쉬움은 없지 않다. 정확히 말한다면 아쉬움보다는 바람이 되겠지만 이제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전우택의 경우 청소년 집단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성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응의 차원에서나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제는 사회 집단별로 차별화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고학력의 젊은 여성과 할아버지의 문제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통일연구원에서 2003년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조사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남한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된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부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5. 우리에게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담론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당위의 수준 그리고 체제의 수준으로 겉돌게 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담론을 분단유지에 활용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도 정치 경제적 이해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탈주민 일인당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7,000만에서 8,000만 원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비용문제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말자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사회의 정서적 물질적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철저하게 지배해왔던 반공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반공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북한체제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게 만들었다. 반공시대의 상징인 머리에 뿔이 달린 북한 사람의 이미지는 반공이념이 체제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은 무섭고, 싸움도 잘하고, 무식하고 못 믿을 사람 즉 ‘빨갱이’로 남한사람들의 뺨속에 박혀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무시하는 것처럼 북한사람들도 무시하는 것이고 이용하여도 전혀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냉전구조가 점차 완화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사람에 대한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급격한

자본주의화는 물신주의를 강화시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그리고 북한 사람을 깔보게 되고 있다. 이념적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공주의는 맹목적인 반북주의로 변화하여 강화되는 경향조차 없지 않다. 더욱이 문화적 배타성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사실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 배타성은 분단구조가 심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어왔다. 조선후기의 획일적 유교이념과 가부장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통해 확장되었으며, 분단이후 냉전구조하에서 문화제국주의 결합하여 배타적 문화 풍토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분단문제와 문화적 배타성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단문제의 하나인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문화적 배타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분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분단극복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보다 좀 더 낫게 되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 평화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통일되면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문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단순히 분단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정하지 못하는 남한의 문화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단문제인 동시에 남한 사회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성적 차별, 지역적 차별 혹은 제3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의 해결은 분단구조의 극복 노력과 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라는 노력이 경주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 문제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수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자문제는 생겨난다. 다수자로서 남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도 될 수 있고, 사위도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같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곧 우리 사회 소수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출발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책들도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연구에서 그들이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자료의 역할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상화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책이건 이들에 의한 책이건, 이들의 책이건 간에 텍스트로서 갖는 가치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필자와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말이나 글을 절대시 할 필요도 없고, 전적으로 무시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와서 말이나 글을 쓰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식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신들의 말이 진정성을 떨 것이고 남쪽 사람들도 진지하게 듣고 볼 것이다.

Abstract

By, Of and for North Korean Refugees: A Review on Books about North Korean Refugees

Woo Young Lee (SNS of Kyungnam Univ., Sociology)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mmigrating into South Korea has increased, so have the concerns about them. Numerous recent publications represent these concerns, of which there are generally three types: books written by North Korean refugees themselves, which are useful for uncovering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books written by refugees arguing a position on North Korean affairs and Korea unification issues; and ones written by South Korean experts on the problems experienced by and associa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particular concerning refugee hardships in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whole, many of these publications do provide those interested in North Korean affairs with insightful and useful information, helping many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immigration into South Korea, adaption problem, minority problem, North Korean reality

이우영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동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1991 사회학 박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1991-2004). 사단법인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평화교육팀장.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남북한 문화정책비교연구(1994),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변화(2000),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2001) 귀순용사에서 북한이탈주민까지(2003)